

제53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9월 16일 상오 9시 25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9월 16일 상오 11시 10분

3. 장 소 : 목포시청 회의실

4. 사 회 : 의장 김경인

5. 출석의원

재석 16명 중 14명

출석의원

김성균, 김삼성, 박두순, 김일섭, 김남진, 김상태, 임석희, 김상대,
명남철, 조양순, 김창희, 정응표, 이정권 의원

결석의원

전철수,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방재수 및 각 과장
서기 박찬대

7. 일사일정

◆ 부의안건

남교동 시장 화재지구 피해진상조사 및 응급구호대책에 관한 사항

◆ 토의사항

◇김 경 인 의장

- 작(昨) 15야 1반불의의 화재로 소진된 남교동 시장지구 이재상황 및 응급 구호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금일 긴급 소집하게 되었다는 요지와 발언이 있었음

◇정 응 표 의원

- 작야 발생한 남교동 시장지구 피해상황은 실로 막대한 것이 온바 당일현장에 시청직원을 1인도 목격할 수 없었다는 것은 진실로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금일은 향동시장 입주자 추첨일로서 일반입주 희망자가 운집하고 있으나 본 건에 대하여는 무기 연기할 것을 동의...재청

◇김 남 진 의원

- 작야의 화재피해 진상을 행정부측에서 개략 보고하여 주기바라며 공설시장 및 공익질옥(전당포)의 화재보험 가입여부 및 공익전당포 입질물에 대한 구출여부를 보고하여 주기 바란다.

◇사회 사무주부 양 우 환

- 확실한 것은 보고 드리기 난 하오나 피해세대는 시장 내 250세대 및 주변 50세대로 추상되오며 시장 및 질옥의 화재보험은 각 백만원씩 가입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입질물 구출상황은 주임의 말에 의하면 금고에 보관한 귀금속류 입질물은 구출된 것 같습니다.

◇김 창 희 의원

- 작야의 화재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시유재산 및 개인재산의 피해상황 조사위원회를 정부의장 및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산업분과위원회원을 구성하여 이재민의 구호대책을 수집할 것을 동의. 재청

◇김 경 인 의장

- 그 명칭을 구호대책위원회로 하는 것이 가할 것 같다.

◇김 남 진 의원

- 시의원 16명 전원을 망라 구성토록 하자

◇김 경 인 의장

- 금일 농은 목포지점에서 본 건에 대한 시내 각 기관장 회의가 개최되는 것 같으니 시의회가 모체가 되어 발족을 보도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정 응 표 부의장

- 본 건 구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총무 및 섭외를 문사분과위원회에서 구호를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조사를 각 분담토록 할 것을 개의. (동의집 수락)

표결결과 재석 14명중 전원가결

◇정 응 표 부의장

- 구호대책을 강구하는데 의원각자 솔선수범 한다는 견지에서 의원비용 변상금에서 5일간의 일비를 회사할 것을 동의

◇김 남 진 의원

- 행정부에서는 현장에 천막 준비할 것을 요망하며 각 부서별 직원배치를 요망한다. 금차 회기를 향후 5일간 연장할 것을 동의 재청 전원가결
- 행정부총무: 주도식, 김상연, 조사: 이병은, 김만길, 구호: 양우환, 이영록을 지명

◇김 경 인 의장

- 행정부에서는 사회과장이 상도 구호대책을 진정기로 된 것 같으나 당 시의회에서도 2인의 대표 의원을 선정 상도 진행토록 할 것을 제안한다. 전원가결
- 대표의원으로는 김삼성, 정응표 의원을 지명

◇김 경 인 의장

- 금일의 의회는 산회하고 농은목포지점에서 개최되는 각 기관장회의에 참석토록 할 것을 선언

· 산회.

(상오 11시 1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9월 17일

시의원 김 상 대

시의원 조 양 순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53회 제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9월 17일 상오 11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9월 17일 하오 1시 30분

3. 장 소 : 목포시청 회의실

4. 사 회 : 의장 김경인

5. 출석의원

재적 의원 16명 중 15명

결석의원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방재수 및 각 과장

서기 박찬대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남교동시장 화재지구 피해진상조사 및 응급구호대책에 관한 건

◇김 경 인 의장

- 금일의 회의는 작일 실시하였던 실적을 총무 조사 구호반별로 대표의원이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부 대표 김 남 진 의원

- 작일의 실적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긴급성을 요하는 주변 상가

피해상황을 조사하였는데 안좌여관을 필두로 48호이며 세대수로는 64세대였던 것입니다.

각 피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르짖는 것은 하루빨리 울타리를 막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방 재 수 총무과장

- 공익전당포 입질물 조처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화재당일 전당포 주임 서정호로부터 금고에 예치하였던 귀금속류 입질문을 지출하여 왔음으로 즉시 경찰서에 연락보관 하여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거절하였음으로 시 재무과 금고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김 경 인 의장

- 작일 사령관(해군경비부)로부터 대여 받은 모포 및 기타 구호상황을 보고하여주기 바랍니다.

◇방 재 수 총무과장

- 작야 시내 YMCA회관을 임시수용소로 결정하여 놓고 피해현장에 출향하여 이재민의 이용을 종용하여 보았으나 작일 이용한 사람은 1인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일 시 사회과장과 동도 도 문사국장이 내시하여 정맥 100석과 모포 100매 가량을 응급 구호하기로 확약 받았으며 시에서는 전청원을 총동원하여 시내 요소 6개 지점에 동정함을 설치하고 동정금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김 경 인 의장

- 작일 기관장회의에서 결의한 바 있는 각 기관별 봉급 1할 공제 및 각 기관 기업체별 의연금 모집이 시급한 것이오니 금일부터 즉시 행동 개시한 것이 시급한 임무라고 본다. 본 건의 연금 모집에는 전 의원 3반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분담 출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산회할 것을 선언.

(하오 1시 3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9월 18일

시의원 박 두 순

시의원 김 상 태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53회 제3차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9월 18일 하오 3시 5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9월 18일 하오 5시 0분

3. 장 소 : 목포시청 회의실

4. 사 회 : 의장 김경인

5. 출석의원

재적의원 16명 중 13명

결석의원

강영락, 임석희, 김상태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및 각 과장

민의원 정중섭, 도의원 이재홍, 김상욱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김 경 인 의장

- 작업의 활동상황을 보고기로 합시다.

- 우선 제1반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작업 방문하였던 결과는 각기 기관장을 만난것도 있고 못 만나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 기관자체의 연금으로는 북교국민학교 및 서부국민학교에서 각 2만원 씩

확약 받았으며 직원 급료 1할 공제에는 거개 확약 받았습니다.

◇김 상 대 의원

- 제3반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반 역시 기관장을 만난 곳도 있고 못 만난 곳이 있습니다 마는 농산물 감사소 5,000환 해무청 16,000환 세관 30,000환 수산시험장 2,000환 등을 확약 받았으며 저은(貯銀) 관재부 미창 어조 상선고교 어련등도 불일내 최선의 성의를 배풀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김 경 인 의장

- 대체적으로 봉급의 1할 공제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 남 진 의원

- 작 17일자 보고당시 시장주변 이재호수 48호에 준 세대수가 62세대라 하였으나 52세대가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내 점포수는 정당허가자가 184명이며 실지 영업자는 오전 중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는 274명이나 시장 변영회측의 말에 의하면 325세대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갑과 을이 합자 영업하는 예도 있고 1개 점포를 갑·을이 분점하여 영업하는 곳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도매상도 지금현재 66명 가량 조사하였습니다.

◇명 남 철 의원

- 구호부의 실적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천주교로부터 기증받은 93포대 중 1포대는 응급 구호용으로 소모하고 52포대는 배급완료 하였으며 40포대는 예탁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터 배급받은 100석 중 3할은 시장내 이재민에게 7할은 주변 이재민에게 배급키로 하였으며 모포 98매 및 고의(헌옷) 467점은 52세대 주변 이재민에게 분여하도록 집행부측에 일임하였으며 시장 내 상인에게는 100석 중 3할의 30석과 천주교로부터의 여분 40포대를 합하여 배급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경인 의장

- 작금 이재상인들의 호소를 청취하면 기왕 소진된 것은 불가피한 것이나 시장적지(자리)에 판자옥 점포라도 가설토록 하여 일시적인 실생활이라도 영

위할 것을 열원하고 있으니 마침 경찰서 보안 계장님이 참석하셨으니 그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서 보안계장

- 중대한 문제로서 본인 독단적으로 결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토의하시는 대로 청취하여 상사에게 복명하여 선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공설시장의 재건 복구되도록까지의 공간을 이용하여 농촌 장터와 같은 형태의 판자옥 점포라도 마련 하여주도록 당지 경찰서장에게 건의함과 아울러 경찰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3명 전원가결

◇명 남 철 의원

- 시장주변 울타리 막는 것에 대하여 시장외곽만 막을 것인가 주변상가까지를 합하여 막을 것인가에 의견이 구구한것 같으니 방청석 이재민측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방청인

- 상가까지는 안막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성 균 의원

- 각 학교측에서는 이재가정 아동에 대한 사친회비 징수를 고려하여 2, 3개월씩 유예하여 주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김 경 인 의장

- 주변상가 52세대 중에서 항동시장 21개소를 우선 입주토록 희망하고 있는 것 같다.

◇명 남 철 의원

- 이 문제는 보류하여 두도록 합시다.

◇정 중 섭 민의원

- 금반의 화재사건은 목포의 불상사가 아니요 국가적인 불상사인 것입니다. 부흥과 건설중의 국가에 유감지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 시키는대는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으니 사무적인 면은 내부적으로 미루고 건설적인 문제는 시기를 포착하여 정부와 외국 원조기관에 적극 절충하여야 될 것입니다. 피해액 같은 것도 경찰서 측과 접근시켜 하루 빨리 중앙요로에 절충할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하 동 현 시장

- 행정부로서는 기술자를 시켜 가설계를 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1주일이면 완료될 것이니 그 연후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하려 하는 것입니다.

◇방 재 수 총무과장

- 본 건 교섭의 원동력이 되는 자금 염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경 인 의장

- 자금 염출 방도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 넘겨 행정부와 타협 결정지을 것을 제안. 제안가결

◇박 찬 대 서기

- 시장주변 울타리 막는 경비 22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사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회할 것을 선언.

(하오 5시)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9월 19일

시의원 이 정 권

시의원 김 성 균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53회 제4차 회의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9월 22일 상오 10시 47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9월 22일 하오 1시 10분
3. 장 소 : 목포시청 회의실
4. 사 회 : 의장 김경인

5. 출석의원

재석 의원 16명 중 14명
결석의원
김석희,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및 각 과장
서기 박찬대

7. 의사일정

◆ 부의안건

- 1) 목포시 상수도 제6기확장공사 자금기채의 건
- 2) 시영 용당도선장 매표장소 건물 구입의 건
- 3) 가압양수장 부지구입의 건

◆ 토의사항

◇박 찬 대 서기

- 남교동 공설시장지구 재건축추진위원회(가칭)에 대한 복안 설명이 있었음

◇김 경 인 의장

- 거반 제1차 회의석상에서 금회 회기를 5일간 연장할 것을 결의한 바 있었으나 미진 된 제반안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10일간 연장할 것을 제안
전원가결

※목포시상수도 제6기확장공사 지금기채의 건

◇박 찬 대 서기

- 제안이유 설명

◇명 남 철 의원

- 본 건 상환계획표를 조합(照合)하면 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매년 막대한 거액을 지출하게게 되는데 아무리 긴축재정이라 하여도 시 행정운영이 원활이 될 것인지 우려된다.

◇김 성 균 의원

- 내 90년도부터 무려 6,600만원 이라는 막대한 책임을 보듬고 허덕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다지 흑자 운영을 기필치 못할 항동시장을 매각처분하여 기채액을 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정 응 표 의원

- 본 건 전문분과위원회에 회부토록하여 심심검토한 연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동의 재청

◇김 성 균 의원

- 산업분과위원회와 합동 심의할 것을 첨가 수락
표결결과 재석 14명 전원가결

◇김 남 진 의원 긴급동의

- 나주상수도 문제에 대하여 나주출신 정명섭 민의원들을 포함한 나주읍측

에서는 상수도 시설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요로에 교섭중이란 말을 들었다. 이에 대한 대책여하

◇하 동 현 시장

- 본 건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나 나주읍의회와 지방유지들이 진정단을 파견한다는 말을 듣고 이쪽에서도 중앙에 사람을 파견하여 보았다. 영산강은 나주의소유물이 아니고 국가에 속한 것이니 나주측 진정단에 적극 반대 하더라는 중앙토목국장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착공 지연된 이유로는 청부업자에 선택에 있는 것이며 규격에 합치되는 업자를 물색하는데 엄선중이기 때문이라한다.

※시영 도선장 대표장소 건물구입의 건

◇박 찬 대 서기

- 제안이유 설명

◇정 응 표 의원

- 본 건에 대하여는 초대 의회시부터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하였던 결과 광주거주 장석봉의 소유로 결정되었으며 행정부측에서는 예산까지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김 남 진 의원

- 본 건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4명중 전원가결

※가입양수장 부지구입의 건

◇박 찬 대 서기

- 제안이유설명이 있었음

◇김 일 섭 의원

- 본 건 지주측과의 교섭을 갖기 위하여 산업 분과 위원회에 회부케 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4명 전원가결

◇정 응 표 의원 긴급동의

- 급시 안전으로서 김경인 의원의 후임으로 꺾원중인 교육위원선거를 내 20일 실시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결과 재석 14명 전원 가결

※남교동시장 화재지구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

· 본 건에 대하여 명 24일자 개회케 될 회의의 사전 타합회가 있었음
(상세초안참조)

· 폐회할 것을 선언. (하오 1시 10분)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9월 24일

시의원 명 남 철

시의원 천 철 수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53회 제5차 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9월 24일 상오 10시 50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9월 24일 상오 11시 14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경인
5. 출석의원
재적 16명 중 14명
결석의원
김상대, 명남철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및 각 과장
서기 박찬대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시장 하 동 현

- 금반 발생한 남교동지구 화재사건에 대하여 의원각위의 시종일관 항구적인 대책수립에 전력을 경주하신데 대하여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이후 이재민에 대한 구호대책 및 재건사업에 대하여는 의원각위의 각별한 후원을 얻어 중앙 요로와 절충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남교동시장주임 인사문제 대하여는 현금 그 진퇴를 결정지을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소진된시장의 사후 수습을 담당시켜 놓았으니 양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누락되었음.

제53회 제6차 목포시 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9월 26일 하오 1시 0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9월 26일 하오 3시 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경인

5. 출석의원

재적의원 16명 전원 참석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1) 제53회 제1차 회의록 통과

2) 제53회 제2차 회의록 통과

3) 제53회 제3차 회의록 통과

4) 제53회 제4차 회의록 통과

5) 제53회 제5차 회의록 통과

6) 남교동 화재지구 이재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및 청원서 접수 상황보고

7) 민의원, 정중섭, 김성호 양 의원으로부터의 전문 보고

◆ 부의안건

1) 목포시상수도 제6기확장 시설공사 자금기채의 건

2) 목포시교육위원 보선의 건

◆ 토의사항

※제53회 제1차 회의록·제2차·제3차·제4차·제5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 찬 대

-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남교동 화재지구 이재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및 청원서 접수상황보고

◇김 경 인 의장

- 남교동 화재지구 이재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및 청원서 접수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간사 방 재 수

- 낭독(청원서 진정서순)

◇강 영 락 의원

- 본 건 청원서에 대하여 말하겠으나 박의수씨의 발표한 성명서는 시민 1인으로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정당한 자기 소신의 피력을 언론기관을 통하여 발표한 것으로 본다. 이 청원서의 내용을 검토컨데 시장의 인사 문제에 관련되는 것 같은 감이 있으나 박의수씨의 성명서로 인해서 본인이 사퇴한다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며 또 의회에서 시장의 진퇴 문제를 결의할 성질의 것도 아닐 것이니 시의회로 하여금 시장의 입장을 변호하여 달라는 것밖에 안된다.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본 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59조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 본회의에 상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김 상 대 의원

- 청원서의 결론으로 보아 시의회로 하여금 계도하여 달라는 것이니 위원회에 회부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 석상에서 결정짓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김 남 진 의원

- 박의수씨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던 그 익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본인의 소속정당으로부터 탈당까지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본 건에 대한 시민의 오해도 해소된 것 같으니 본 의회에서는 일종의 상식론으로 간주하고 접수정도로 처결할 것을 동의 재청...3청

◇김 삼 성 의원

- 소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발언하는 바이나 시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를 경솔히 처결할 수가 없다고 본다. 박의수씨로 하여금 그 성명서를 재차 발표하여 주도록 종용하여 보았으면 좋겠다.

◇김 성 균 의원

- 본 건 청원서의 내용이 이재민일동으로 되어 있으니 제출한 시민의 질의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일응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이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개의...재청

개의 표결결과 재석 16명 중 가 3표 부결

동의 표결결과 재석 16명 중 가 13표 가결

※진정서 접수상황

◇김 남 진 의원

- 본 건 진정서의 내용을 검토컨대 이재민 대중으로부터 원성을 가져야 할 관계 책임자에 대하여 당일의 진화작업 활동상황 사후 수습책 등을 포착하고 극력 옹호하는 심사를 추찰할 때 따뜻한 분위기가 충단되고 있다.

사실상 금반의 화재에 대한 책임전가를 윤 서장 개인에게 돌린다는 것은 도의적인 견지로 보아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오니 시장이 완전복구 되도록까지 윤 서장의 신변에 구매됨이 없도록 관계당국에 본 의회의 명의로써 진정서를 제출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전원 가결

※목포시상수도 제6기확장 시설공사 자금기채의 건

◇내무위원장 김 삼 성 의원

- 본 건 심의를 담당한 재무 및 산업 양분과위원회에서는 상수도 시설의 긴급 중요성에 비추어 원안대로 기채 할 것을 통과하였습니다.

◇김 창 희 의원

-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시 자체 부담액의 부족액인 6,600만환은 부득이 기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90년도 필요액인 3,800만환 기채에 대하여는 양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한 나머지 시민의 부담이 좀 과중할지도 모르나 통과시킨 것이니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3청

◇강 영 락 의원

- 본 건 위원회에서 심의함에 있어서 수도문제에만 편중하고 시민의 담세력 등을 감안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이 문제를 위요하고 토론을 거듭하였던 결과 익년도 기채액 2,800만 환을 보류시킬 수 있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전제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정 응 표 의원

- 본 건 상수도 문제 추진을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찬의를 표하던 아니하였다. 그 이유로는 금반기채액 6,600만 환을 20년간 연차계획으로 상환하는데 이자가 무려 7,800여만 환에 달하는 것이니 여기에 부수되는 시민의 부담을 고려않을 수 없는 것으로 현금의 시민의 부담하는 호별제도 결코 저렴한 것은 아닌 것이다. 설상가상격으로 목포시 경제면의 심장부인 남교동 시장의 소실에 수반되는 세원을 잃었다는 점과 공익 전당포 소실로 인한 영세시민의 실정 등을 짐작할 때 원안통과 시키는데 난색이 있었던 것이나 다행히 위원회에서 참석하신 하 시장께서 본 건 기채를 함으로써 총체적인 호별세 부과액에 차이가 있을리 없다는 증언을 듣고 수락함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동의표결 결과

재석 16명 전원가결

※목포시 교육위원회위원 보선의 건

◇강 영 락 의원

- 본 건 교육위원회위원 보선은 당초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그 기일이 너무 단축된 감이 있으며 그 인제를 선택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그 점으로 금차 회기에서 본 안건을 폐기하고 차기 의회에 상정 선거토록 할 것을 동의, 재청...4청

◇정 응 표 의원

- 동의를 위법성을 지적한다. 거반 제4차 회의석상에서 본 의원의 긴급동의로써 본 건 의사일정 변경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놓고 이제와서 금차 회기에 폐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법에 명시된바 이대로 지체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차라리 금차 회의가 성원 미달로 유회한다면 모르지만 폐기를 결의한다는 것은 이해키 곤란한 문제다

동의 표결결과

재석 16명 중 가 11표 가결

◇김 상 대 의원

- 사사로 서울 여행 중 국회를 방청하였던 결과 당시 남교동 시장 화재사건에 대한 정중섭, 김성호 양 의원의 활동상을 보고 그 열열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보고가 있었음

◇김 경 인 의장

- 명27일 국회 조사단의 영접 및 응대의원과 서울 파견 시의회 대표단을 결정할 것을 제안

◇김 상 대 의원

- 역전 영접은 의원 전원이 하기로 하고 접대의원은 부의장, 내무, 산업, 문사 분과 위원장 등 4명으로 하되 서울 파견은 의장이 지명 추후 발표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전원가결

◇김 경 인 의장

- 폐회할 것을 선언

· 곧이어 제53회 의회의 폐회식이 있었음.

(하오 3시 5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9월 27일

시의원 김 일 섭

시의원 김 창 희

작성자 서기 주 도 식